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 (주)깨끗한 사람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며 이윤을 위해 성장하고 이윤이 남지 않으면 포기하는 조직체에 불과하다. 태생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표를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정의가 일반적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돌연변이다.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있다. 바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 (주)깨끗한 사람들(대표 김동수)이다.

충남형 예비 사회기업인 (주)깨끗한 사람들은 주요 사업내용 역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위생관리 및 청소대행 서비스 분야인데다 이를 활용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충실해 모두가 꿈꾸는 상생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할 만 하다.

특히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조직의 끈끈한 정을 중시하는 기업 분위기는 ‘사람이 주인인 세상, 안정적인 일터’를 목표로 충남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 깨끗한 사람들 설립 배경

(주)깨끗한 사람들은 2002년 7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쾌적하고 살기 좋

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청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대청소 등의 개념이 없어지는 반면, 위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면서 청소, 위생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해충의 등장과 신종 전염병 등의 확산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청결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소명감을 갖고 창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명감은 회사의 미래상에도 잘 나타나있다.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과 같은 비전은 사람들간의 상생을 넘어서 환경까지 고려하는 배려가 돋보인다.

특히 기업의 미래상에 발맞춰 주요 업무분야인 청소와 위생관리 작업에도 친환경 청소용품 및 작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역시 청소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수 ㈜깨끗한 사람들 대표는 “2010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될 당시에만 해도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정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청소 및 위생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직원만 26명으로 증가해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깨끗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하나

㈜깨끗한 사람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사업은 청소와 위생관리다. 홈텍서비스를 비롯해 신규입주청소, 이사청소, 세차서비스, 해충방제서비스, 저수조 청소,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 위생관리 용역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장비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타 청소업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홈텍서비스는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홈 클리닝 매니저(위생관리원)가 투입돼 일을 한다. 이들은 공업용 각종 흡입 청소기, 친환경 세제, 고온 스팀 청소기와 특수 장비 등을 이용해 창문틀 및 바닥 구석 미세 먼지부터 찌든 때를 완전 제거에 나선다.



이후 살균 소독과 탈취 서비스를 실시하고 청소가 마무리 될 경우 고객과 전체 리스트 점검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받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지향한다.

신규입주청소의 경우 신축 건물에 존재하는 미세 먼지와 건축 자재들로 인한 유해 성분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한다. 이들은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두통으로 입주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싱크대와 창틀, 각종 수납장, 전기 콘센트, 몰딩 부분 등 틈새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사청소는 (주)깨끗한 사람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렵거나 더러워진 실내분위기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청소 서비스다.

집안 내부의 모든 가구 및 구성품을 비롯해 베란다까지 향균처리하고 있다.



세차서비스는 (주)깨끗한 사람들의 자랑이다. 자동차가 제2의 주거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시작하게된 세차서비스는 친환경 세차공법인 원포(One 4)시스템을 도입했다. 극소량의 물을 회오리 스팀분사 방식으로 분사해 세차하는 신개념 친환경 세차공법은 외부세차, 광택, 내부세차, 향균탈취가 한번에 해결돼 단골고객이 늘고 있다.

개미, 바퀴벌레, 쥐와 같은 해로운 곤충과 동물을 제거하는 해충방제서비스는 과학적 진단과 체계적인 솔루션을 바탕으로 숙련된 방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약의 사용을 최소화해 예방 관리에 나서고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밖에도 빌딩, 상가, 아파트, 주택 관공서 등의 저수조 청소와 대형건물 위생관리 서비스, 다양한 청소장비 및 용품 도소매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

사회적 기업이 사회 공헌활동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해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단순한 일이 아니다.

(주)깨끗한 사람들은 지역 아동들의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했다. 전국 최초로 논산시 보건소와 공동으로 나서 관내 어린이집 장난감 살균 소독을 실시 한 것이다. 아동들이 일과 중 어린이집에서 공동 생활하며 입에 물고 만지는 장난감에 대한 살균 소독의 중요성을 느낀 까닭이다. 실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살균 소독한 장난감의 보유세균 임상 실험 결과 세균 감소가 확인됐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 수족구병 등 감염병도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올해에는 사업 예산까지 책정됐으며 타 시군에도 확대됐다.

김동수 대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 공헌은 단순히 구제나 자선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회사가 갖고 있는 장비나 기술력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이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회 공헌활동으로 2012년부터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가 있다. 약 1년간 논산지역 96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4000여 명의 아동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이 서비스 역시 지역 사업에 반영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 교도소 수형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

인생의 한순간 실수로 차가운 감옥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수형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인 김동수 대표의 꿈이다.

김 대표는 “장기복무자들은 출소 후 일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같은 꿈을 지닌 이유는 교도소 아버지학교의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수형자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법무부 갱생보호시설이 있지만 출소자들은 제2의 수형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외톨이가 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김 대표는 (주)깨끗한 사람들의 친환경 스팀세차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을 쌓은 후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향후 과제 및 성장 노력

친환경 스팀 살균 소독 확장 계획에 따라 장비 개발, 방역 전문 교육 등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주요 사업의 특성상 위생관리사 개개인의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이 중요시됨에 따라 전문가 육성이 강조된다.

이에 위생관리사들의 강점과 역량 수준별로 차별화된 육성계획을 수립, 위생관리 교육과 수돗물 관리법에 의한 교육, 소독종사원 교육을 비롯해 방역협회와 고려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방역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공 및 일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일반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협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 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아닌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의한 자립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지만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야 기업이 유지될 수 있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규사업 개발과 사회적 기업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일보/ 김석모 기자]